

생산비가 낮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일 시 : 1993. 10. 18, 오후 2시
- 장 소 : 본회 회의실
- 참석자 : 강석부((주)서울인티 대표)
김인식(체리부로식품(주) 대표)
김정주(건국대 자연과학대학 농경제학과 교수)
신홍중(고창양계 대표)
이기동(전북양계협동조합장)
최 한(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 사 회 : 김정주 교수
- 정 리 : 김동진/본지 기자

'85년부터 계열화가 부
'85분적으로 이루어 지
기 시작한 우리나라 양계산
업은 7~8년이 경과해 오면
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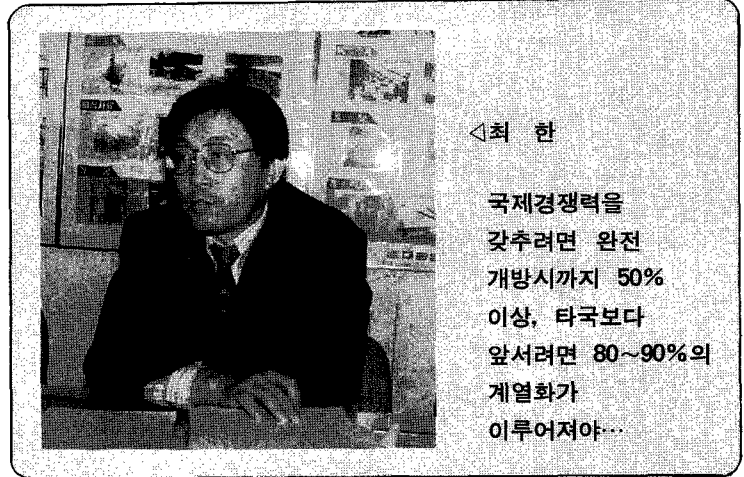
시기를 같이해 양계산물
개방품목 중 15개 품목이
이미 개방화된 상태이고 나
머지 8개 품목이 '97년까지
개방될 예정에 있어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계열화의 중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양계업계에는 경기
위축과 과잉생산으로 부도
사태를 맞는 등 예년에 없
던 불황으로 말미암아 계열
화사업에 대한 한계성을 지
적하는 속단까지도 내리지
고 있어 양계계열화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좌담
회를 개최하였다.

△김정주 : 양계부분은 타축
종 분야와는 달리 짧은 기간
이지만 계열화를 주도할 만큼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소비위축
과 극심한 수급불균형으로 가
격동락의 기복이 심화되어 양
계산업 안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
할 때가 오지않았나 봅니다.

양계계열화 사업을 추진해



△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완전
개방시까지 50%
이상, 타국보다
앞서려면 80~90%의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오면서 현재 이 사업이 어디
까지 와 있나를 평가해 주셨
으면 합니다.

△최 한 : 국제기류에 발맞
춰 국제경쟁력을 키워간다는
취지아래 정부에서는 '85년부
터 계열화를 시범사업으로 도
입하여 양계분야에는 '92년부
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생산
량을 기준해 육계는 6월말 현
재 32%, 산란계는 2%의 참
여율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이
지만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보
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갖추
려면 완전개방시까지 50%
이상, 우위를 차지하려면 80
~90%의 계열화가 이루어져

야 하리라 보고 투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 현재 산란계는 계
열화의 태동으로 볼 수 있으
며 육계는 시련기에서 정착단
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업위주로 계열화가 진행
되리라는 거부감도 있었으나
시설자동화, 현대화를 단축시
키는 계기가 되었고 전업화,
전문화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
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으며
앞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큰
변화를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
니다.

△김인식 :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으로 짧은 기간동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강석부

생산보다 유통쪽에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하며 수매,
비축사업으로
유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할 터...

볼 때 이는 양계 뿐 만 아닌 축산업의 미래산업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양계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계열화에 의한 유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당면한 어려움으로 다소간의 무리와 인식이 잘못 되었을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강석부: 닭값 하락 등 전반적인 양계산업 침체로 현재 계열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열화로 인해 양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형식적인 유통이 이루어지

고 있을 뿐 질적으로 보면 계열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통만 된다고 계열화가 이루어진게 아니고 이윤이 발생해야 하는데 닭값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열화로 인한 시장점유율을 높여 양계산물을 조절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홍중: 계열화가 양계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인것 만은 사실이나 계열업체들이 완전계열화를 목표로 종계장, 부화장을 소유하다 보니 일반중계, 부화장과는 마찰은 물론 신규로 참여하는 꼴이 되어 안정되어 있던 업체도 추가적인 생산규모

로 인해 비전문성을 띠어 쇠약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주: '90년 육계발전협의회가 활동할 당시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계열화 연구를 하게 됐는데 농가에 획기적인 일로 받아 들였습니다.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계열주체들이 위탁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수수료 경쟁을 하다보니 계열화의 개념이 혼미해지고 사육자들은 원자재를 공급받아 기르다 보니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의미를 잃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열주체는 기술지도 측면에서 환경과 시설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양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석부: 정부 지원자금이 올해부터 유통쪽에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생산자금의 비중이 높다 보니 양계산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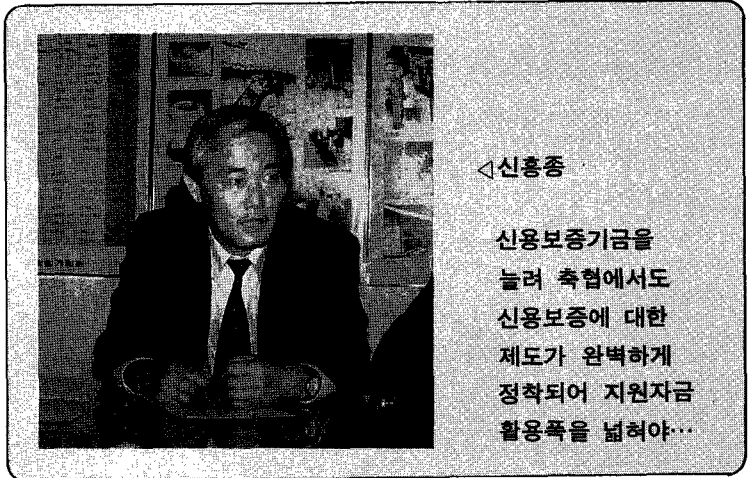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계열 지정 업체가 대규모로 중계, 부화장 시설을 갖추는데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생산과잉 등 불황을 자초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런 결과로 아직도 농가중의 50% 정도가 계열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게 큰 문제로 계열이든 비계열이든 처해있는 실정을 고려해 점진적인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신흥종 : 누구나 처음 부딪치는 문제는 자금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용자를 받기 위해선 축협을 통해 자금을 받게 되는데 담보설정이 까다롭고 지원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높아 쓰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농민에게는 후치담보를 전제로 하든지 신용보증기금을 늘려 축협에서도 신용보증에 대한 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됐으면 합니다.

△최 한 :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기초가 되는 시설쪽에 집중투자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계획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사업지원 체계를 달리해 고정액수의 개념을 없애고 사양가가 원하는 액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사건축에 있어서는 곧 가변성형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 농가가 원하는 50% 범위내에서 계사를 축소 확대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인데 문제는 앞으로 부업농가와 전업농가의 실태를 현실성있게 파악하여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는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신흥종

신용보증기금을 늘려 축협에서도 신용보증에 대한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지원자금 활용폭을 넓혀야...



△김인식

조합형식의 보완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홍보활동 등 다각적 노력으로 위생적인 양계산물 유통에 진력해야...



△이기동

기존농가를
배제하고 신규농가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생산과잉을 초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

△이기동 : 정부방침대로 한다면 자동화, 전문화로 농가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전북지역 육계농가의 경우 '88년 200농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400여 농가로 늘어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를 볼때 기존농가를 배제하고 신규농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과잉생산으로 유사계열업체라든가 중간유통상들이 활기를 쳐 계열업체들은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유통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주 :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계열화가 정

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자금지원 등 계열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부합해 계열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흥종 : 정부에서는 계열화를 유도하려면 생산비를 낮추는 쪽으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계열주체나 사양가들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이뤄야 할 것이며 지원자금의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 수직계열화만을 생각할게 아

나라 기존 종계, 부화장과 계열업체간의 연계성을 살린 수평적인 계열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 한 : 시장개방이 되면 우선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보다 생산비가 산란계의 경우 25%, 육계의 경우 30% 정도 낮아져야 하리라 봅니다.

현재 부화장 250여개, 종계장 180여개, 도계장 70여개 중 자동화, 전업화에 의해 '97년까지 상당수의 업체가 탈락되리라 보고 있으며 양계농가도 경쟁력을 잃게되면 같은 현상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시설에만 편중됨이 없이 유통쪽에도 힘을 기울여 각종 지원제도를 완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이기동 :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합당한 시설개선을 해야하리라 봅니다.

외국 기자재가 국내 대리점을 통해 활발히 보급되어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기계를 파는데 관심을 보일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주

양계산업의 존속, 발전을 위해 계열화 사업은 획기적인 일이며 수입개방후 소비자들의 선택이 계열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한편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 시켜 소비촉진은 물론 같은 업계 상호간에 협동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김인식 : 지엽적이지만 사료비 절감과 자원활용 방법으로 도계장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렌더링 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를 상대로한 위생적이고 싼 값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계열화의 성패를 걸어 국내 양계산업의 미래를 위한 총체적인 계열화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열주체들은 앞으로 경쟁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수급조절을 할수 있는 조합형식의 보완적인 협의체

체를 만들어 위생적인 양계산물 유통에 노력함은 물론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펴 나간다면 양계산업이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석부 : 앞서 말했듯이 생산보다 유통쪽에 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그나마 살아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육계산업에 앞장 서리라 봅니다. 즉 육계가격의 등락폭이 계속 심화된다면 앞으로의 계열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것입니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시 가격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매 비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자금액수를 더욱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으

며 지급된 자금을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와 협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주 : 우리는 앞으로 최종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계열화 사업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양계산업이 존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목표아래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수입개방 후 소비자들의 선택이 계열화 사업의 성패를 열화업체들은 앞으로 이방면에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계열화 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정부, 협회, 조합, 농가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을 때 그 성과는 앞으로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4

